

# 여성이 깨어나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총체적 위기국면에 처해있다고 말하여 진다.  
 위기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정치 및 정치인에 대한 불신.  
 땅 값, 집 값, 물가의 앙등현상 및 경제력 집중으로 부의 형평분배 요구 증대현상,  
 그리고 과소비, 외채선호사상 만연, 매일 발생하는 살인, 강도, 강간, 마약복용 등  
 각종 사회악의 잔인화와 향상화 현상. 이러한 것들이 위기의 실체들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인간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부재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그 수에 있어서는 전 인구의 절반이나  
 법적, 제도적, 관습적으로 여성들에게 부여된 역할이나 노동에 대한 평가는  
 남성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  
 그러나 최근 수 년 동안 여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띠고있다.  
 여성들의 이와같은 역할 증대와 함께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여성도 책임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고,  
 따라서 이제는 여성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증대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와같은 인식하에 앞서가는 사회 저명 여성들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백영숙 · 김장숙 · 주준희

# 사회병리 현상, 환경오염 문제 해결의 주역은 여성이다



박 영 숙

녹색의전화 대표·평민당 부총재

최근 들어서 살인강도, 마약, 인신매매, 성폭행 등의 사회범죄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택가까지 침범한 퇴폐향락업소와 불법비디오가게, 전자오락실 등은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새로운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도덕적 자존심을 지켜왔던 우리나라에서 과거엔 외국 폭력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 속출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도 계속되는 쇼킹한 사건들에 대해 면적이 되어 무감각해 진 것 같다.

그에 더하여 요즈음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이다. 오존층 파괴, 온실효과, 수질오염, 대기오염, 해양오염, 산업폐수 등등 한 두 가지 환경관련 용어들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로 빈도높게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환경오염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그 해결의 매듭을 풀어야 할지 아찔할 때가 많다. 판당호 준설문제로 작년의 수도물 파동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물조차 마음대로 마시지 못해 불안해 하고 있고, 전국이 산업폐기물 매립반대와 골프장 건설 반대 등의 시위로 떠들썩한데도 정부는 시원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환경오염 문제와 마약, 인신매매 등의 사회병리 현상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 두가지 모두가 종국에 가서는 인류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긴박감에서이다.

환경문제는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인 지구와 자연생태계의 파괴요인이며, 마약, 살인, 인신매매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은 인간 자체를 파괴하는 요인이다. 지구와 인간사회가 무질서하게 파괴된다는 것은 곧 인류의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위의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이 모두가 극대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회제도의 소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사회병리현상의 원인도 우리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의 물질만능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소비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 때문이다. 세대로 이어지는 구조화된 가난의 악순환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다운 삶을 꾸릴 수 없었던 밑바닥 인생들이 갖게 되는 대사회적 적대감은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돈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소비를 조장하는 사회풍토 속에서 이들은 현실도

월간 시사동향 90.11.

피적인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하고자 하여 마약 등의 유흥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외국 폭력영화와 외설영화는 청소년들의 문화마져 오염시키 나날이 청소년 사회범죄도 늘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들 조차도 성폭행과 마약, 살인 등의 강력 범죄에 오염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 부끄러워 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와 외제차, 명크코트, 외제가구 등의 과소비를 즐기고, 또 한쪽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성(性)마저 팔아야 하는 극도의 불평등한 사회제도의 개선 없이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환경오염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는 인간을 위한 효율과 편리만을 추구해온 과학기술 만능주의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감수해야 한다는 성장위주



전국 70개 여성단체회원 1천여명은 20일 하오 향교회관에서 과소비추방 및 여성실천 집회대회를 가졌다. [연철]

####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오면 여성들의 역할은 많은**

**분야에서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이야말로**

**환경보전운동과 건전한 사회문화를**

**가꾸는 일에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주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성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으며 본성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의 존귀함을**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의 경제정책의 전환없이 해결이 안 된다. 기업의 극대 이윤추구 속에서 도시 서민과 노동자, 농어민 등 국민 모두가 증금속과 유독물질에 몸을 망치게 되었다. 울산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에 의해 "울산병"이라는 새로운 병명이 만들어졌고, 상봉동 연탄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 박길래씨가 주민 진폐증으로는 세계 최초로 기록하게 된 사건, 원전근무 노동자의 아내가 무너아를 낳은 사건 등등 실로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익히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는 문송면 군의 수은중독 사건과 고상국

씨의 카드늄 중독으로 인한 사망, 원전레이온 노동자들의 이황화탄소 중독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사건 등등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가동을 외면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많기로 으뜸간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해방지시설 투자는 총투자액의 0.3~0.4%에 불과하여 일본이나 미국의 1/30~1/40수준이라 한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형편으로, 어떤 기업들은 공해방지 시설을 가동하는 것보다 벌금을 무는 것이 더 이득이라 생각하여 위반을 되풀이하기도 한다.

게다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미흡하다. 그지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몇 가지 미봉책만을 발표하는 정부의 관행을 깨뜨리지 않는한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감이 든다.

우리나라 환경관련 예산은 GNP의 0.

2%정도다. 일본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 환경예산이 그 나라 GNP의 1~3%라는 것을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환경예산이 이토록 적은 것은 그동안 성장위주, 개발위주 경제정책에 밀려 환경업무가 무시당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 경제부처 사이에서 행정부 내의 위상이 낮은 환경처가 환경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또다른 어려움이 있으나 환경자료와 조사결과 등을 은폐하려고만 하는 관료주의, 편의주의적 행정운영도 환경보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병폐이다.

따라서 아무리 헌법에 환경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민 스스로의 자구운동이 없는한 법조문은 사문화될 것이다.

나는 우리 여성들이야말로 환경보전운동과 건전한 사회문화를 가꾸는 일에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주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성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으며 본성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의 존귀함을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늘의 사회구조상 사회적 노동

서로가 안락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질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바로 잡고, 안락에  
대한 불신과 학위를 교정하는 것은 올바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건전한 시민들의 시민운동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생명을 사랑하는  
여성들이 이제 일어설 때라고 생각한다.



보다는 가족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위해 헌신하며, 남성들에 비해서 지역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성들과 주부들이야말로 바로 이 모든 사회적 문제들의 치료자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오면 여성들의 역할은 더 많은 분야에서 필요로 하게 될 전망이다.

서구나 일본에서도 환경보전운동과 교육운동 등의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이다. 일본에는 많은 주부들이 생활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하여 무공해 상품의 제작, 유통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 문화가꾸기 운동 등에 열심이라고 한다.

서독을 비롯한 유럽에서 80년부터 퍼지기 시작한 대안문화(=제3의 문화) 운동에서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안문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연의 보호, 자연과의 융화, 인권옹호운동, 반핵평화운동, 인종차별반대, 시민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등,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의 건설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다.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정장 대신 검소한 스웨터나 청바지를 즐겨 입고, 가공식품 대신 생당근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은 극대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메카니즘에 길들여져 스스로 과다소비의 노예로 전락해온 현대인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가난한 후진국의 입장에서 우리들은 물질주의가 밀려오는 외래문화와 외국 폭력영화, 그리고 서구식 생활양식의 무조건적 모방과 수용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해서 사용 취소가 되었던

물품들이 수입되고 있다. 즉 합성세제, 1회용 컵이나 1회용 아기기저귀, 주방용 쓰레기분쇄기 등등과 각종 인스턴트식 문화들은 분명 새로운 의식의 전환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들이다.

또 선정적 내용의 가사로 된 팝송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채로 청소년들에게 불려지고, 외국가수들의 선정적 율동을 곁들인 비디오테이프들이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고, 그에 더하여 청소년 잡지들은 외국 모델이 입고 선정하는 외국 상표의 의복들을 선전하기에 바쁘다.

결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신매매, 성폭행, 폭력, 마약 등등은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통해 그 심각성을 서로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자녀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작은 일부터 하나씩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 주변에는 평범한 여성들이지만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많다. 서울 YMCA 모니터클럽의 중추도 어머니들이고, 불량문화를 가려내기 위한 어머니모니터 클럽도 있다. 또 몇몇 단체의 여성들은 소비자운동이나 생활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와 환경보전 운동을 위해 일하고 있다.

우리들은 사회적 존재이다. 어느 개인도 타인에 대해 배타적으로 살 수 없다. 삶은 종단 이웃에 의해 영향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서로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질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바로 잡고, 인간에 대한 불신과 학위를 교정하는 것은 올바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건전한 시민들의 시민운동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생명을 사랑하는 여성들이 이제 일어설 때라고 생각한다.